

# 박인로, ‘누항사’

## 외 부분 1

우활(迂闊)홀산 이 너 우히 더니 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날기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깃픈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셉히 되야,  
셔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석일 썬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히다 장부(丈夫) 쏘을 움길넌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齟齬)히다.  
꺾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히며,  
주머니 뷘엇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랴.  
빈곤(貧困)히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히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논가.  
분의 망신(奮義忘身)히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 우량(于 于囊)의 줌움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히야 몇 백전(百戰)을 지니연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랴.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젓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생각히리.  
경당문로(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롬논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耒)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히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니 쇼로 갈로손고.

## 교재 수록 부분

한기태심(旱既太甚)히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눅흔 논애 잠싼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싼 디혀두고,  
쇼 흥 적 듀마 히고 엄섬이 히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기 어득히 혼자 서셔  
큰 기참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하온 후(後)에,  
어와 그 뉘신고 엄치(廉恥) 업산 닉옵노라.  
초경(初更)도 거윈디 그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히기 구차(苟且)히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히나나 갑시나 주업 즉도 히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름이,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다키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허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허고 큰 언약(言約) 허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허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허면 혈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썬이로다.

## 외 부분 2

와실(蝸室)애 드러간돌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窗)을 비겨 안자 식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 추창(終朝惆悵)허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논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사온 저 소위논 벗보님도 뎡홀세고.  
 가시 영권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논,  
 허당반벽(虛堂半壁)애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허 씬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허야 어지버 이저씨다.  
 첨피기육(瞻彼淇澳)혼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허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깃픈 곳애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업산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허며 말라 허랴.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순 지취(志趣) 이스리마논,  
 두세 이령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랴.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허건마논  
 니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온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허 뜻이 온포(溫飽)애논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외다 허리 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뒤로 살렸노라.

## 정철, '속미인곡'

### 수록 부분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하야 이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는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훈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혼뉘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칭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칭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그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었디하야 디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뉘라셔 뉘섯는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 네와 그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좁은 었디 자시는고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뉘일이나 사름 올가  
내 므음 돌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그의 가 비길히나 보라 하니  
뉘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뉘 뉘만 걸렸는고  
강천(江川)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 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혼더이고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역진(力盡)하야 풋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솜의 님을 보니  
옥(玉) ㄱ툼 얼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머슴의 머근 말슴 슬꺾장 숲자 하니  
눈들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좁은 엇디 씨뚫던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어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 크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 허난설헌, '규원가'

## 수록 부분

저멋더니 ㅎ마 어이 다 늘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슴 ㅎ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 ㅎ야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 ㅎ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 유희(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쏜근치 만나 잇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 ㅎ기 살어름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오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 기약(百年期約) ㅎ얏더니  
 연광(年光)이 훌훌 ㅎ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 ㅎ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 화안(雪鬢花顏)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소냐  
 스스로 참괴(慚愧) ㅎ니 누구를 원망(怨望) ㅎ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잇어  
 백마 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굿쳐신들 칭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 ㅎ다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어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비논 므스 일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돌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 교재 <중략> 부분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ㅎ여 어이 ㅎ리.  
 청등(靑燈)을 돌라 노코 녹기금 빗기 안아,  
 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 조춘 섯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 댓소리 섯도는 듯,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넷 소래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구빅구빅 쓴쳐서라.

### 수록 부분

출하리 잠을 드러 쏘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뉘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쓰쳤는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서 님 가신 디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쳐 잇고 모운(暮雲)이 디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고디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헉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가튼니 쏘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헉여라

## 이현보, '어부단가'

### 수록 부분

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니젯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제1수>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ㄱ랏논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흐거든 더욱 무심(無心)흐애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바불 뺏고 녹류(綠柳)\*에 고기 빼여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비 밋야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부니 아랴실고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閒雲)이 기(起)흐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흐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르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제5수>

# 이이, ‘고산구곡가’

## 수록 부분

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  
터 닦아 집 지으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하리라 <제1수>

일곡(一曲)은 어디인가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들판에 안개 걷히니 먼 산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솔둥이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제2수>

이곡(二曲)은 어디인가 화암(花岩)에 봄이 늦었구나  
푸른 물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인가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푸른 나무에 산새는 아래위로 지저귄 때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풍경 이에 더 없어라 <제4수>

사곡(四曲)은 어디인가 송애(松崖)에 해 넘는다  
못 속의 바위 그림자 온갖 빛이 잠겼구나  
임천(林泉)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에 겨워 하노라 <제5수>

오곡(五曲)은 어디인가 은병(隱屏)이 보기 좋다  
물가에 세운 집은 깨끗함이 끝없구나  
이 중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하리라 <제6수>

육곡(六曲)은 어디인가 조협(釣峽)\*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누가 더욱 즐기는가  
황혼(黃昏)에 낚싯대 메고 달빛 받아 돌아온다 <제7수>

칠곡(七曲)은 어디인가 풍암(楓岩)에 가을빛 질구나  
맑은 서리 얇게 치니 절벽이 비단 빛이로다  
찬 바위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 <제8수>

팔곡(八曲)은 어디인가 금탄(琴灘)에 달이 밝다  
빠어난 거문고로 곡조 몇을 연주하니  
옛 가락 알 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 <제9수>

구곡(九曲)은 어디인가 문산(文山)에 해 저문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묻혔구나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제10수>

## 윤선도, '견회요'

### 수록 부분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쓴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